

주간기도정보

2024. 7. 23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대법원,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교계 일제히 규탄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전면금지 적법 판결까지 논란 야기하고 있어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파트너를 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커플 사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교계는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동성결합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2013년 미연방대법원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됐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판결 이후 2년 만에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동성혼 합법화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이 입법권을 침해한 자의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섭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헌행법에서 동성에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계는 앞으로 저항운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와 사회에 대법원판결의 법적 문제점과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피해 등을 알리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성혁명 물결을 차단하는 운동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독교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에만 그치지 않고, 민법의 가장 중요한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면서 “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건강부회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성토했으며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한 대법관 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코로나19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날 판단에 대해서도 예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인원 제한,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식당과 결혼식장 등에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는 전면 집합금지를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요한일서 4:4-5)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편 2:10-12)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분명한 헌법의 기준마저 모호하고 편향된 해석으로 동성에 관계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 소식에 규탄하는 교회의 탄식을 들어주소서. 세상의 법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여 도모하는 모든 시도와 배후의 악한 영들의 간계를 파하여 주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이때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진리를 행하며 기도함으로 싸워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외치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그리스도께 입 맞추며 구원을 얻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한·쿠바 수교 앞둔 작년 11월 국내 망명 ‘김정은 표창장’ 받았던 리일규 참사…인터넷 사용으로 북한 실상 접해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망명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한국과 쿠바가 올해 2월 수교를 앞두고 한창 물밑에서 소통하던 때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리일규(52) 정무참사가 작년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들어왔다.

리 참사는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남미통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리 참사는 2013년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무기를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억류됐을 때 파나마에 파견돼 교섭을 벌여 선원들을 석방시키는 공로를 세웠다.

태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그는 청천강호의 억류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았다”고 썼다. 리 참사는 최근 직무 평가 등으로 북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다가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쿠바 수교 움직임이 그의 탈북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된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릴 정도로 전통적인 우방국이지만, 지난 2월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발표했다. 리 참사는 탈북 전까지 쿠바 대사관에서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리 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 언급이 금지돼 있어 동료들과 탈북 외교관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는 대신 검색을 많이 해본다”며 “단순히 흥미 수준을 넘어 그들의 활동상과 생활 모습을 최대한 상세히 알기 위해 ‘연구’ 수준으로 찾아본다”고 했다.

리 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 언급이 금지돼 있어 동료들과 탈북 외교관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는 대신 검색을 많이 해본다”며 “단순히 흥미 수준을 넘어 그들의 활동상과 생활 모습을 최대한 상세히 알기 위해 ‘연구’ 수준으로 찾아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북한에 있을 때는 나름 세계를 많이 돌아봐서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촌놈이더라. 은행, 금융, 교통 규정 아무것도 모르고 자동 시스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탈북한 것으로 확인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도 해외에서 인터넷 사용으로 사상적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 KBS 인터뷰에서 “하늘과 같이 믿었던, 저 신과 같은 김씨 일가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 먹었어’ 하는 그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분노가 끓어올랐다”라고 털어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엘리트 탈북민의 수가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는 이미 10명 안팎의 엘리트들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19로 닫았던 국경 재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강화된 당국의 통제로 인해 외교관들의 동요가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연합뉴스, 뉴스1 종합).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이사야 61:1-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누가복음 12:2-3)

하나님,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실상이 엘리트들의 탈북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보며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일을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김씨 일가를 신처럼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박탈하며 노예처럼 통제하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됨을 북한 주민이 밝히 알게 하시고 악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주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죄와 사망의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북한 주민에게 선포되게 하사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한 해외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그들의 안전을 지키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안식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라”

청소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시지옥’

‘공부 잘하는 약’, ‘4세 고시’...대한민국 입시전쟁 현주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는 슬프게도 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중생의 유서에서 나온 말이다.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당당하게 성적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회일까.

2022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 시간은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5시간 9분, 중학생이 7시간 10분, 고등학생은 8시간 2분으로 조사됐다. 2009년 OECD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은 49시간으로, 다른 국가들과 약 15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2022년 조사 결과에서도 크게 학습 시간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열과 입시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열은 사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지출은 작년 27조 원에 육박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지출은 오히려 증가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부 잘하는 약’이라 하여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DHD) 약을 처방받아 아이에게 복용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청소년 ADHD 환자가 60% 넘게 증가했는데 통상적으로 ADHD 환자는 8-9세 경에 진단받는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ADHD 환자가 아닌 경우 약을 먹으면 오히려 학습 능력의 저하는 물론 두통 및 복통, 조증과 공격성을 일으킨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 선생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이 처음 사교육을 받는 나이는 생후 55개월이다. 이는 최근 생겨난 '4세 고시'라는 신조어와 연관돼 있다. 4세 고시란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지칭한다. 4세 고시는 알파벳 대소문자 읽고 쓰기, 영어 회화 등으로 구성된다.

영어유치원 입학에 위한 4세 고시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은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닌다. 대소변을 가리거나 연필을 쥐기도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두뇌 발달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입을 모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한동대 석좌교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먼저 부모의 욕망에서 기인한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잘못 표출되면 아이를 오히려 괴롭히고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사회 구조 역시 문제다. 명문대를 입학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확실적인 구조를 ‘성공’이라 치부하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개성을 죽이고 경쟁을 부추긴다”고 전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디모데전서 6:17-19)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4)

하나님, 대한민국 교육의 처참한 현실 앞에 통탄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오니 헛된 욕망과 자기사랑으로 어그러진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겨를도 없이 어릴 때부터 과열된 경쟁사회로 끌고 가는 원수의 간계를 파하시고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들려주소서.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하늘소망을 품고 진리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세대와 교회를 일으키사 이들의 삶을 통해 주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다음세대를 뒤따라 다른 이들도 나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에 참여하는 부흥을 주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